





# 아랍에미리트의 경제안보



## I. 서론

한국과 UAE는 1980년 수교 이래 원전, 국방·방산, 에너지, 건설, 보건의료,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으며, 그 동안 축적된 성공적 협력의 경험과 상호 신뢰를 토대로 호혜적 협력을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도약시킬 기회를 맞고 있다.

특히 최근 미·중 패권 경쟁에 따른 국제질서의 근본적 변화,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으로 국제 환경에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와 유사한 지정학적 환경에 처해 있고, 국제사회 중견국으로서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추구 등 우리와 유사한 입장을 갖고 있으며, 우리와 상호 보완적 경제구조와 과학기술 협력 잠재력을 갖고 있는 UAE는 우리의 유용한 경제안보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SWOT 분석을 통해 UAE의 경제안보 여건을 살펴본 후 한국과 UAE가 협력하여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주요 경제안보 협력 분야에 관해 간략하게 기술해 보고자 한다.

## II. UAE 경제안보에 대한 정성적 분석

### 1. 개관

UAE는 갈등과 불안정이 지속되는 중동의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도 모하메드 대통령 (Mohamed bin Zayed Al Nahyan: MBZ)의 견고한 리더십 하에 국가의 미래에 대한 확고한 비전과 중장기적 전략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2021년에는 건국 50주년을 맞아 '미래 50년 프로젝트(Project of the 50)'를 발표하여 지식기반 혁신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청정에너지 비중 확대 및 수소 역량 강화 등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본격화하고 있다.

UAE는 정치, 외교, 경제, 통상, 금융, 과학, 기술 등 주요분야에서 아랍세계를 선도하는 역할을 추구하고 있으며, 오일머니의 효율적 투자와 인도적 지원 등을 결합



하며 국제적 위상과 지정학적 영향력을 꾸준히 높이고 있다.

이에도 불구하고 UAE가 지향하는 목표와 이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능력 사이에 커다란 간극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거주 인구 천만 중 자국민이 10%에 불과한 인구구조적 취약성, 불안정한 지역 정세, 독자적 과학 기술 능력 미흡 등 극복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특히, 코로나 19와 저유가라는 이중고 하에서 석유 및 서비스 중심 산업구조의 한계가 극명하게 드러났으며, 국가 보건체계 강화 및 안정적인 식량공급망 확보 필요성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또한, 미·중 패권 경쟁 격화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중동에서의 역할 축소 등에 따라 지정·지경학적 불안정 요인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효과적 대응 또한 요구되고 있다.

## 2. 강점

(정치)

7개 에미리트가 연합하여 건국한 UAE는 대통령 중심의 연방제를 채택(개별 에미리트는 사우디 등 여타 걸프국가와 마찬가지로 왕정체제 유지)하고 있는데, 중동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안정되어 있고, 효과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는 나라로 평가된다.

UAE 건국의 아버지인 고 자이드 대통령이 다져 놓은 굳건한 발전의 토대 위에서 고 칼리파 대통령, 현 모하메드 대통령 등 2세대 지도자들 또한 전략적인 마인드를 갖고 효율적으로 국정을 운영해 온 결과이다.

이처럼 강력한 리더십과 국가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비전을 겸비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치밀한 중장기적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일사불란하게 이행해 나가는 통치체제와 개방적·포용적 사회 분위기가 말로 UAE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라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왕정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UAE 정치·사회 시스템 내에서 ‘마즐리스(Majlis)’와 ‘연방평의회(Federal National Council)’는 민의 수렴 기능을 통해 정치적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마즐리스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부족사회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모여 주요 사건과 당면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 방



안을 마련하는 의사소통의 장이다. 연방평의회(의원 40명)는 민주국가의 의회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각 에미리트의 통치자들이 의원을 지명하는 방식에서 출발하여 현재는 의원 총수 절반인 20명을 33만명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여성 50%, 21-40세 청년 60%로 구성)이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정치 참여와 여성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외교)

UAE는 핵·미사일 개발 및 타국 내정 개입 등으로 요약되는 이란으로부터의 위협과 아울러, (특히 2011년 Arab Spring 이후) Muslim Brotherhood와 같은 정치적 이슬람(Political Islam/Islamism)의 중동 내 확산을 가장 심각한 안보위협으로 간주하여 대응해 왔다.

1968년 영국군의 걸프지역 철수 이후 이란이 샤르자 에미리트(UAE를 구성하는 7개 에미리트 중 하나)와 공동 영유하기로 했던 걸프만 ‘아부무사’섬과 함께 인근 ‘대툰브’섬, ‘소툰브’섬도 무력 점령하여 실효 지배함에 따라 발생한 영유권 분쟁 또한 UAE-이란 관계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UAE는 이 문제를 직접 대화, 또는 국제사법재판소(ICJ)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란과 예멘의 후티 반군 등 이란 연계 세력으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방위태세를 견고히 하는 동시에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는 차분한 대응을 통해 핵심적 국제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지나치게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을 방지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한편, 미국 등 우방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무력분쟁 발생을 억제하는 한편, 이란과의 직접 대화 가능성도 꾸준히 모색하고 있다.

UAE는 이스라엘을 이란의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은 물론, 방산, 과학·기술, 교역·투자, 의료, 농업,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유용한 파트너로 인식하여 2010년대부터 비공식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왔다. UAE는 2020년 9월 소위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 이스라엘과 공식 수교하였는데, 이는 중동의 정치지형을 일거에 이스라엘 대 반이스라엘 구도에서 이란 대 반이란 구도로 전환시킨 담대한 외교적 결단으로 평가된다. UAE에 이어 바레인과 모로코도 이스라엘과 수교함에 따라 아랍국가 중 대 이스라엘 수교국은 총 5개국(이미 수교한 이집트, 요르단 포함)이 되었다.



한편, UAE는 리비아, 시리아, 예멘, 수단, 소말리아 등에서의 분쟁 개입을 통해 터키, 이란, 카타르 등 주요 경쟁국들의 영향력 확대 및 정치적 이슬람 확산을 차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UAE 리더십은 이러한 정책이 지역 정세를 안정시키는데 있어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가져오지는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 대외 개입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했던 것으로 보이며, 2020년말에는 예멘 등으로부터의 철군을 거의 마무리하고 본국 방위태세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UAE는 2021년 1월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본격적으로 나타난 미국의 대 중동 개입 축소 움직임에 직면하여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 등 외교다변화를 적극 추구하는 동시에 미국, 프랑스 등 전통 우방국과의 안보협력에 더하여 아랍권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경제)

UAE는 2001-2021년간 GDP 4배(1034억불→4150억불), 인구 3배(330만→약 940만) 증가를 달성하는 등 2세대 리더십 하에서 ‘사막의 기적’이라 불릴 만한 경제발전을 구현하였으며, 이는 명확한 국가발전전략 바탕 위에 원유·천연가스 수입 기반 자본력, 지리적 위치, 개방적·혁신적 정책, 외국인 노동력 등 주요 요소들을 효과적으로 결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UAE의 국부펀드를 통한 효율적인 자본운용은 주목할 만한데, 운용자산 규모 100억불 이상 국부펀드를 7개 보유하고 있으며, 운용자산 총 규모는 1조6천억불 내외(아부다비 정부 펀드가 73% 보유)로서 중국, 노르웨이에 이어 세계 3위에 올라 있다. 국부펀드를 통해 글로벌 사모펀드, 헤지펀드, 벤처캐피탈 등과의 광범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국부펀드 해외 투자를 유용한 외교적 도구로 활용하고 있기도 하다.

2021년 GDP는 4150억불(1인당 약 44000불)로 경제규모 기준 세계 34위이나, 총인구 약 940만명 중 100만명 내외로 추정되는 자국민 대비 경제규모 측면에서는 세계 최고수준으로 평가된다(자국민 기준 일인당 국민소득은 25만불 내외로 추정).

UAE는 중동·북아프리카(MENA) 지역 선도국가로서 경쟁력 평가 등 각종 국제평가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9년 세계경제포럼(WEF) 평가에 따르면 거시경제안정성 1위, ICT 채택율 2위, 상품시장효율성 4위, 공공부문 효율성 4위, 무역개



방성 7위, 기업가정신 8위, 인프라 및 교통 8위, 정부의 미래대비 9위 등 주요 지표에서 상위권에 올라 있다.

UAE는 정치적 안정, 양질의 사회 인프라, 기업 친화적 환경, 주변국 시장으로의 접근 용이성 등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슬람 국가임에도 외국인 체재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결혼, 가족제도, 성 평등 관련 법·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법령상으로는 20% 단일 세율의 법인세·개인소득세를 규정하고 있으나, 원유·가스 채굴 기업, 외국은행 지점 이외의 대다수 기업에는 부가가치세 5%만 부과하며, 이마저도 사우디(15%), 바레인(10%) 보다 낮아 기업 활동 환경이 양호하다.

UAE의 경제·산업 개발은 정부의 석유 등 천연자원 채굴 수입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특성 상 공공서비스는 물론 은행·보험·자산운용, 도소매, 숙박·관광, 보건·의료, 통신, 제조 등 전 산업 영역에 걸쳐 정부가 기업과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정부의 주요 전략·정책이 공기업, 국부펀드 등을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UAE는 2020.3월 이후 코로나19와 국제 저유가 상황에서 경제 전반에 걸쳐 극심한 침체(2020년 실질 GDP 6.1%, 경상 GDP 14% 감소)를 겪기도 하였으나, 세계적으로 가장 신속하게 높은 백신 접종율(2021.9 기준 77.3%)을 달성하여 경제활동 재개, 외국인 방문, 소비여건 조성 등에 필요한 환경을 마련하는 한편, 기업의 생존과 경쟁력 유지를 위한 각종 유동성 지원 및 부담 완화에 노력함으로써 주변국들에 비해 조기에 위기를 극복한 것으로 평가된다(Horizon Research Group Covid Pandemic Economic Recovery Index: 122개국 중 37위, MENA 지역 2위(1위 이스라엘)).

UAE는 건국 50주년 기념일(2021.12.2)을 앞두고 2020년을 ‘새로운 50년 준비의 해’로 선포하여 주요 분야별 개혁조치와 미래 전략(Project of the 50)을 수립하였는데 탈석유·산업다변화 가속화와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전환 대응이 그 핵심을 이루고 있다.

산업다변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제조업·첨단산업 육성, 국내 부가가치 확대, 무역거점화 강화, 인재 양성 및 외국인 우수 인력 체류 조건 개선, 자국민 창업·민간고용 촉진, 외국인 투자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적시하고 있으며, 특히 디지



텔 혁신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국내 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 지원, 법제 정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UAE가 세계 7위 산유국임에도 UAE 리더십이 기후변화 대응 및 안정적 에너지원 확보를 위한 원전건설 필요성에 주목하고 한국을 협력파트너로 하여 바라카 원전건설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점은 UAE 리더십의 국가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장기적 비전과 통찰력을 여실히 보여 준다 하겠다.

(사회·문화)

UAE는 이슬람을 국교로 하고 있으며 UAE 국민들에 있어 이슬람은 단순한 신앙체계를 넘어 사회·문화·일상생활 전반과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고 있지만, 사우디, 이란 및 여타 주변국에 비해서는 종교 관련 규제가 완화되어 있으며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추구하고 있다.

1960년대 10만명 내외에 불과하던 UAE 인구는 급격한 외국인 노동력 유입에 따라 2013년에는 900만명 이상으로 급증하였으며, 현재 200여개 국가 국적자들이 거주하고 있다.

총 인구 중 자국민이 10%에 불과한 UAE가 성공적으로 경제·사회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근저에는 외국인 노동력의 효율적 활용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UAE 거주 외국인들은 인도, 파키스탄, 필리핀 등 아시아계 노동자 50%, 이집트, 시리아, 북아프리카 등으로부터의 아랍인 23%, 유럽계 서양인 8%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UAE 정부는 다양한 국적, 종교·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 포용성, 개방성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 2월 프란치스코 교황의 UAE 방문, 2019년 관용의 해(the Year of Tolerance) 지정, Abrahamic Family House(경내에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성전을 함께 건축) 및 힌두사원 건립 등 가시적 조치를 통해 성과를 이루어 내고 있다.

UAE는 인구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는데 있어 자국민에 대한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글로벌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교육 시스템의 혁신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전체 예산의 20% 전후를 교육에 투입한 결과, 문맹률은 약 6%로 중동지역 최하이며 초등학교 교사 비율은 1:15로 최고 수준이고, 해외에서 대학에 진학할 경우에도 정부가 학비와 생활비를 보조하고 있다.

특히 UAE는 자이드 초대 대통령 당시부터 여성 교육,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중시해 온 결과, 중동 지역에서 여성의 지위와 사회 참여율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되었으며, 일례로 현재 33명의 UAE 연방정부 각료 중 여성이 9명을 차지하고 있다.

UAE 리더십의 우수성은 UAE를 중동의 경제·과학·기술 중심지를 넘어 문화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비전에서도 잘 엿볼 수 있다. 이는 UAE를 세계적인 관광 중심지로 성장시킨다는 정책과도 맞닿아 있는데 아부다비의 경우 이미 주요 관광 명소가 되어 있는 ‘루브르 아부다비’와 ‘자이드 모스크’에 더하여 막대한 투자를 통해 구겐하임 박물관, 자이드 박물관 등 대규모 문화 시설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3. 약점

1968년 영국의 갑작스런 걸프지역 철수 결정에 대응하여 자이드 아부다비 통치자 주도로 1971년 아랍에미리트 연합국(아부다비, 두바이 등 6개 에미리트로 구성, 라스알카이마는 다음 해 2월 참여)을 창설한 이래 최고지도자(아부다비 통치자 겸 연방대통령)를 중심으로 하는 효율적 의사결정 및 일사불란한 이행체제를 통해 건국 후 50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어 왔다. 하지만 통치자 일인이 최고 결정권을 가지는 왕정체제로서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UAE 건국의 아버지인 자이드 대통령이 구축한 든든한 기반위에서 그 뒤를 이은 2세대 통치자들 역시 국가발전 방향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제시하며 견고한 발전 추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향후 자질이 미흡한 지도자가 현명하지 못한 방향으로 국정을 운영한다면 단기간에 국력 쇠퇴와 불안정에 직면할 수도 있다.

최근에는 아부다비와 여타 에미리트 간 정치·경제력 격차 확대 및 아부다비의 압도적 영향력(UAE 영토의 84%, 석유매장량 94% 보유) 행사 등에 따른 갈등 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내부통합 유지가 중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아부다비와 두바이 간 공항, 산업단지 등 인프라 및 항공사에 대한 대규모 중복 투자, 각 에미리트 권한 사항에 대한 정책 조정 난항 등이 UAE 연방체제의 비효율적 측면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대외관계에 있어서도 중동지역내 정치적 위상 제고와 영향력 확대를 중시하는 아부다비와 관광, 물류, 투자·교역 등 중심의 경제구조 상 이란, 카타르 등 주변국 관계와 지역 정세의 안정이 긴요한 두바이의 정책 우선순위가 상충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UAE와 이란 사이의 정치·외교적 긴장 상태에도 불구하고 두바이에는 이란인 40만명 이상이 거주(두바이 거주 인구의 10% 이상)하고 있으며, 이란은 두바이의 최대 재수출 시장이기도 하다.

UAE는 교육을 통한 자국 인력 양성과 외국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국가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확보해 왔으나, 향후 국제 정치·경제 정세 변화 등에 따라 언제라도 인구구조 취약성에 따른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의 예로 2020년 상반기 코로나 발생 후 인도, 파키스탄 국적 근로자 및 화이트 칼라 외국 인력이 다수 출국함에 따라 인력 부족 현상이 발생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이나 심각한 역내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규모 인력 유출 및 이에 따른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자국민에 대한 시혜적 고용 및 사회보장 정책과 아부다비의 여타 에미리트에 대한 재정·복지 지원이 UAE의 국가적 통합에 크게 기여해 왔으나, 이로 인한 지속적인 재정적 부담 증가와 경제적 효율성 저하는 UAE 정부에게 근본적인 방향 전환 모색을 요구하고 있다.

#### 4. 기회

UAE는 1971년 건국 이래 미래지향적이고 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바탕으로 여러 도전과 제약 요인을 기회로 전환시키는데 뛰어난 능력을 과시해 왔는데, 그 대표적 사례가 석유기반 경제로부터 지식기반·혁신주도 경제로의 전환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와 저유가라는 이중고 하에 UAE가 가진 석유·서비스 중심 산업구조의 한계가 더욱 명확히 드러남에 따라 제조업 육성 등 산업다변화 가속화, 재생에너지와 수소 역량 확대 등 에너지 전환 및 기후변화 대응 강화, 그리고 이를 위한 인력 양성과 제도개선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

UAE는 미래 50년 프로젝트를 통해 산유국으로서는 최초로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2050년까지 청정 에너지 비중을 50%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내 놓았으며, 블루·그린 수소 생산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UAE는 2023년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COP 28) 개최를 통해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협력 강화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UAE는 2021.10-2022.3 간 'World Expo 2020 두바이'를 개최한 바 있다.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중동아프리카·서아시아 지역에서 최초로 열린 두바이 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팬데믹에 직면한 인류가 한 자리에 모여 인류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비전을 나누는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UAE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외교네트워크 강화의 기회로 십분 활용하였다.

UAE의 기민하고 유연하며 과단성 있는 리더십은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도 빛을 발하였다. 코로나 초기 엄격한 방역조치에 그치지 않고 대규모 검사와 신속하고 광범위한 백신 접종을 두 축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빨리 코로나 억제에 성공한 나라가 되었으며, 이 성과를 토대로 중동지역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UAE 정부는 국가 의료보건체계 정비를 통한 중동지역 의료 허브화 추진 전략을 마련하게 되었다.

## 5. 위협

전술한 대로 UAE로서는 아라비아만/페르시아만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는 이란으로부터의 안보 위협과 Muslim Brotherhood로 대표되는 정치적 이슬람 확산 대응이 최우선 안보과제이나 중동정세 안정 여부와 직결되어 있는 이 두 사안이 가까운 장래에 해결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오히려 상황 전개에 따라서는 언제라도 심각한 위기가 초래될 수 있어 앞으로도 UAE가 직면한 최대의 위협 요인이 될 것이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 출범이후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 미국의 탈 중동 움직임과 이로 인한 중동질서 재편 흐름은 UAE 외교가 모든 역량을 동원에 대응해 나가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

미·중 간 글로벌 패권경쟁은 우리나라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UAE에 있어서도 당면한 도전이 되고 있다. 미국의 탈 중동 추세속에서 외교다변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UAE로서는 경제적 측면은 물론, 정치·외교적 측면에서도 이란 등 역내 주요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최근 미국이 화웨이 5G 시스템 도입 등 긴밀해지고 있는 UAE-중국 관계 견제 차원에서



UAE에 대한 F35 수출을 제한한 것으로 추정되는 데에서도 볼 수 있듯 UAE의 대 중국 협력 강화는 미국과의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

UAE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우방이자 협력파트너는 같은 수니파이자 왕정체제를 공유하며 지리적으로 연접한 사우디아라비아라는 점에 이견이 없으며, 양국은 정치, 외교, 안보, 경제, 국제무대 등 모든 면에서 긴밀한 파트너십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양국 모두 '탈 석유 산업다변화'라는 경제발전 전략을 추구하고 있어 투자 유치, 지역 경제 허브화 등에 있어 경쟁 및 갈등요인이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이를 원만하게 조정하여 양국 간 큰 틀의 지정학적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는 것이 UAE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UAE는 2014년 이후 지속적인 성장 정체에 직면하고 있어 4차산업 혁명분야 등 첨단산업 육성, 제조업 비중 확대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해 나가야 할 상황이며, 이와 함께 에미리트 간 경제통합성 제고, 산업·혁신 생태계 구축, 우수 외국인력 확보, 경쟁체제 개선을 통한 외국기업 유치 등 구조적 개선을 적극 추진해야 할 상황이다.

## II. UAE 경제안보 여건에 비춘 한-UAE 중점 협력 분야

(개관)

UAE가 자국의 제약요인과 여러 도전과제를 극복하고 원대한 국가발전의 포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고 기술적 경쟁력을 갖춘 파트너를 잘 모색하여 호혜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관건인데, UAE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은 여러 핵심 분야에서 상호보완적 윈-윈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이상적인 파트너가 될 것이다.

한국으로서도 UAE의 점증하는 정치·경제·외교적 위상, 중동지역 거점·관문으로서의 유용성, 그간 성공적 협력을 통해 축적된 상호 신뢰·호감, 폭넓은 협력범위 등을 감안할 때 UAE는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우리 외교다변화 노력의 우선 대상국이 될 수 있다.



특히 양국이 모두 새로운 리더십 하에서 도약의 전기를 모색하고 있는 현 시점이야말로 다가올 수십년을 향한 보다 높은 차원의 전략적 협력을 발전시킬 적기이며, 점증하는 경제안보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원전, 에너지안보, 방산, 투자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대규모 원-원 협력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발굴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분야별 협력 방안)

##### 1. 원전협력

양국관계 발전에 핵심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는 바라카 원전사업을 성공적으로 완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UAE내 후속사업 및 제3국 공동 진출을 적극 모색해 나가는 한편, 연구·개발 및 UAE 원전산업 생태계 조성 협력, 기술·기자재·부품 기업 진출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2. 방산

국방·방산 협력은 원전협력과 함께 양국관계 발전의 양대 축으로서, M-SAM2 사업으로 형성된 모멘텀을 활용하여 공동투자, 연구개발, 제3국 공동진출을 위한 중장기적 방산협력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이를 계기로 우리 방산 인력 진출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 3. 에너지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에너지 분야에 대한 양국 공동 투자를 확대해 나감과 아울러 유사시 대비 차원에서 UAE로부터의 원유·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4. 투자

우리 제도의 운영경험을 UAE에 전수하는 측면의 금융협력은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



어 왔으나 아부다비 투자청, 무바달라 등 국부펀드와의 협력은 상대적으로 미진했던 것이 사실이다. 생명과학, 테크 기업, 배터리, 인프라 등 UAE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공동투자플랫폼 방식의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UAE와의 투자 분야에서의 협력은 우리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기회(UAE 국부펀드의 글로벌 사모펀드, 헤지펀드 네트워크 활용)를 제공함과 동시에 GCC 산유국(향후 2년간 3000억불 이상 재정 흑자 달성 가능성)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 제고 및 UAE 최대 국부펀드인 아부다비투자청(ADIA)의 우리 공개시장 투자 견인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 5. 보건의료

UAE 국비환자 한국 송출, 우리 의료기관의 UAE 병원 위탁경영 등 기존 협력을 통해 축적된 UAE의 우리 의료기술, 의료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UAE내 종합의료단지, 바이오 신약 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사업을 발굴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등 유관 정부 기관과 민간 부문 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6. 과기협력

UAE는 앞으로의 50년에 대비하여 4차 산업혁명 분야 등 첨단산업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green technology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2021년 화성탐사선 발사 성공 등 우주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어 이러한 분야에서 한-UAE 간 윈-윈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므로 이를 위한 구체 협력사업을 조기에 발굴해 나가야 한다. 중동지역 스타트업 허브를 지향하는 UAE 스타트업 프로그램에 대한 우리기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펀드 조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7. 문화/컨텐츠

UAE의 중동 문화 허브 지향 정책과 최근 K-culture에 대한 UAE 및 중동지역의



점증하는 관심을 접목하여 문화컨텐츠 분야의 양국 투자 협력 사업을 발굴해 나가야 한다.

#### 8. 농업/식량안보

양국 간 스마트팜 기술협력 MOU 등을 기반으로 사막 벼 재배, 스마트 온실 사업 등을 본격 추진해 나가야 한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UAE가 식량안보에 부여하는 중요성이 현저하게 커짐에 따라 농업분야 협력 잠재력이 급증하였다. 그간 양국 공동 연구결과를 토대로 사막형 스마트팜 모델을 개발하여 상업적 협력 프로그램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 9. 건설·플랜트

UAE는 우리에게 있어 누적 수주액 기준 2위의 주요 해외 건설시장이나, 현지 업체 성장, 중국·인도 기업의 공격적 수주 경쟁, ICV(In Country Value) 적용 등 현지화 정책으로 우리기업의 수주, 수익 창출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추세이다. 친환경 RO(Reverse Osmosis) 방식 등 신기술 해수담수화 사업, 스마트시티, 수소 교통, 신재생에너지 등 기술집약적 신산업 분야 특화를 추진하고, 투자개발형 프로젝트를 발굴해 나가야 한다.

#### 10. 교육

모하메드 대통령 등 UAE 지도부는 향후 국가발전의 관건이 교육에 있다고 보고 있으며 한국을 훌륭한 교육제도를 바탕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나라로 평가하면서 한국과의 교육분야 협력, 특히 한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과학, 기술, 보건 분야 협력 확대에 큰 관심을 갖고 있어 이를 위한 효율적 협력 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III. 여론주도자

(개관)



1968년 영국의 걸프 지역으로부터의 철수 결정에 따라 1971년 12월 아부다비, 두바이, 샤르자, 푸자이라, 아즈만, 움알콰인 등 6개 에미리트가 참여하여 UAE를 건국(라스알카이마는 다음해 2월 참여) 하는 과정에서 자이드 아부다비 통치자와 라시드 두바이 통치자가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특히 영토와 자원면에서 압도적인 위치에 있는 아부다비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이에 따라 아부다비 정치 엘리트들이 사실상 UAE를 지배하고 있으며, 왕정체제의 특성상 통치자와 주요 왕실 인사, 이들의 측근인사들이 정치, 외교는 물론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를 주도하고 있다.

특히 UAE 건국의 아버지인 자이드 통치자가 가장 총애한 세번째 부인 파티마 여사 소생 6형제, 그 중에서도 현 아부다비 통치자 겸 UAE 대통령인 모하메드, 부총리인 만수르, 대통령 외교보좌관인 타흐눈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2년 5월 칼리파 대통령 서거 후 모하메드 왕세제가 아부다비 통치자 겸 UAE 대통령에 취임함에 따라 후임 아부다비 왕위계승자(왕세자, 혹은 왕세제) 임명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론주도자)

-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Mohamed bin Zayed Al Nahyan) 아부다비 통치자 겸 UAE 대통령
  - 1961년생, 영국 육사 졸업(Royal Military Academy Sandhurst), UAE 군에서 헬리콥터 조종사, 공군사령관, 참모총장, 부총사령관 등 역임하며 군사분야에서 다양한 경험 축적
  - 2003년 부왕세자, 2004년 왕세자 취임, 2014년 1월 이복형 칼리파 대통령이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 실질적인 통치권을 행사해 왔으며, 2022년 5월 칼리파 대통령 서거 직후 아부다비 통치자/UAE 대통령 취임
  - 2019년 NYT에 의해 가장 강력한 아랍지도자로 선정
-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흐얀(Mansour bin Zayed Al Nahyan) 부총리 겸 대통령 실장



- 1970년생, 모하메드 대통령의 동복 동생, UAE대 국제관계학과 졸업, 아부다비 왕실 및 UAE 연방 재정 총괄
- 현 두바이 통치자이자 연방 총리인 알 막툼의 사위로서 아부다비와 두바이 간 가교역할 수행, 영국 프리미어 리그 맨시티 구단주
- 왕위계승자 후보 중 한사람으로 거론 중
- 타흐누 빈 자이드 알 나흐얀(Tahnoun bin Zayed Al Nahyan) 국가안보보좌관
  - 1968년생, 모하메드 대통령 동복 동생, 미국 유학, 국가안보보좌관으로서 UAE 대외정책에 핵심 역할
  - 아부다비 지주회사(ADQ)와 First Abu Dhabi Bank 총재로 경제분야에서도 영향력 보유
- 칼리드 빈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Khaled bin Mohamed bin Zayed Al Nahyan) 아부다비 집행위 의장
  - 1982년생, 모하메드 대통령의 장남, 아부다비 집행위원회 의장 겸 국가안보부 보좌관, 왕위계승자 후보 중 한사람으로 거론 중
- 압둘라 빈 자이드 알 나흐얀(Abdulla bin Zayed Al Nahyan) 외교국제협력부장관
  - 1972년생, 모하메드 대통령의 동복 동생, UAE대 정치학과 졸업
  - 2006년 이래 외교국제협력부 장관 재임을 통해 국제외교가에 폭넓은 인맥 보유, 국가미디어위원회 위원장 등 겸임
- 칼둔 빈 칼리파 알 무바라크(Khadoun bin Khalifa Al Mubarak) 아부다비 행정청장
  - 1976년생, 미 터프츠대학 경제·금융학과 졸업, 아부다비 국부펀드인 무바달라의 최고 경영자이기도 하며 모하메드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사람, UAE의 대 한국 협력관계 총괄
- 술탄 빈 아흐메드 알 자베르(Sultan bin Ahmed Al Jaber) 산업첨단기술부장관 겸 아부다비국영석유회사(ADNOC) CEO



- 1973년생, Univ. of Southern California 화공과 졸업
  - ADNOC CEO로서 아부다비의 석유 증산을 주도하면서도 Masdar 회장으로서는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자 선도
  - 기후변화특별사절로서 UAE의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도 핵심적 역할 수행
- 누라 빈트 모하메드 알 카비(Noura bint Mohammed Al Kaabi)
- 1979년생, UAE대 경영정부시스템과 졸업, 2017년부터 문화부장관 재임(2018년부터 국립자이드대학 총장 겸임)
  - 2013년 미국 잡지 Foreign Policy 100대 글로벌 지식인, 2014년 포브스 중동 국가 30대 젊은 유력인사에 선정되는 등 대표적인 중동지역 여성지도자 /끝/